

2025 06

통권 302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상광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안창선 다니엘
(봉화 본당)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 41. 13)

성경 말씀은 천주교 안동교구청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은정 리더아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뽑기를 통해 돌돌 말려져 있는 종이를 펼쳐 읽었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든든함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을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이 말씀을 붙여 두고서 어떤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생업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인간적 원인들

12.

동시에, 우리는 최근 50년 동안의 기온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기간에 10년마다 섭씨 0.15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150년 동안의 상승 폭과 비교할 때 두배의 수치입니다. 1850년부터 오늘날까지 지구 온도는 섭씨 1.1도 높아졌는데, 극지에서 더욱 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10년 안에 지구의 권고 최고 한계치인 섭씨 1.5도의 상승 폭에 이를 것입니다. 기온 상승은 지구 표면뿐 아니라 수 킬로미터 높이의 대기권에서도, 해수면을 비롯하여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바다의 산성화를 증가시키고 산소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빙하가 줄어들고 적설량이 감소하며 해수면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동감목대리구에서 안동자치교구로”(3)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안동감목대리구 신부들의 사목활동은 어떠하였을까?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성동 성당 아래 감목대리관에서 가졌다. 초창기의 모임에서는 1931년에 주교회의에서 펴낸 「한국선교 공용지침서(Directorium)」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방향제시, 사제생활, 본당, 재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가 끝난 뒤에는 주로 공의회 회칙이나 문헌을 연구하였는데, 주로 우리말 미사와 영성체 등이었다.

교리교사는 각 본당마다 학교선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영주와 봉화 등은 고3학생이나 학교선생들에 의해서, 안동에서는 청년들이 교리교사 역할을 하였다. 전교사의 활동은 상주와 문경지역에서 주로 하였는데, 당시 상주와 문경지역은 왜관감목대리구 산하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몇몇 전교사들(예컨대 김철 가롤로(화령), 신상철 아우구스티노(가은) 등)의 증언에 따르면, 공소방문과 예비자교리 그리고 주일학교와 외국인 신부님들의 강론 교정 및 사회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특별히 안동감목대리구에서는 신학원에도 사람(배 요셉)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교리교사에게 임금을 준적은 없었고, 다만 복사나 성가대에 일정정도 수고비를 조금씩 주었다고 한다. 대구교구 지침서에 따르면, 감목대리구 신부들은 1년에 2번 이상 공소방문을 수행해야 했는데, 감목대리구 신부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소를 순방했다고 한다. 구인덕 신부에 의하면 “당시 사제들의 공소사목은 잘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오토바이를 사용한 신부들(예컨대 여동찬, 노광명)도 있었다.

안동감목대리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자선사업)을 많이 권장하였다. 안동본당 주임 여동찬 신부가 처음으로 안동 계명원의 나환우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신부들이 구라사업(求癩事業)을 많이 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직후라서 구호물자(救護物資)가 많이 보급되던 시절이었다. 이 구호물자는 전쟁 직후부터 보급되기 시작(1955년)하였는데, 안동에서는 <가톨릭구제본부>를 통하여 보급받았고, 이러한 통로를 안동성당 여동찬 신부가 담당하였으며, 1964년 구호물자 보급이 끊어지자, 계명원은 구인덕 신부가 맡아서 도와주었다. 안동대리구 내의 각 본당(영덕, 봉화 등)에서는 나환자 정착촌을 만들었다.

한편 구호물자가 보급되던 시기에는 예비자들이 급증하였다.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각 가정에서는 저마다 1명씩 성당에 보냈다. 이때 세례를 받고 1년 동안 성당에 잘 나와야 교적에 올려주었다. 구인덕 신부에 따르면, 상주, 문경지역에 밀가루 신자가 많았다고 한다. 구인덕 신부는 사제 모임에서 신자나 비신자나 공평하게 가난한 이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안동감목대리구의 밀가루는 당시 고아원이 있던 봉화에서 거의 가져갔다.

당시 안동에 구호물자를 배급해 주던 책임자는 미국 월드 서비스 대표자인 가를 주교였다. 청송과 영양은 본당 설립 전에 매우 가난한 곳이어서 이 지역에도 도움을 주었고, 또한 안동에서는 불량배들에게도 구호 물품으로 도움을 주어서 많은 경우에 상당수 불량배들이 개과천선하기도 하였다. 다음 호에서도 계속하여 교구설정 전의 교회 상황을 알아볼 것이다.

냉담

안동지구 청년회장
목성동 본당 권영윤 미카엘

냉담이란 말을 모를 정도로 냉담자의 길을 오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고등부까지는 회장도 하고 주일엔 성당에서 살 정도로 가까이하던 저였지만
갓 스무 살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지 신앙생활보다는 방탕
한(?) 생활까진 아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비밀이지만 저보다 먼저 냉담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 동안, 냉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모태신앙이란 울타리가 있어서 었을까요?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무언가 바래야 할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찾던
것이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그리고 성당이었습니다.
참 못나게도 냉담 중이면서도 신앙을 필요로서 간주하는 못난 하느님의 자
녀였던 것입니다.

냉담의 길 끝에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 대단하지도 멋지
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움’.

어렸을 적 기도문을 외우기 위해 애썼던 것(교리교사 선생님이 무서웠음),
친구들과 함께 성당에서 보냈던 재미있던 순간들, 그중 가장 그리웠던 것은 성
당,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묻어있는 성전 의자에서 나오는 어딘지 모를 따뜻한 나무 냄새, 차가운 대리석과 그 차가움을 압도하는 십자가가 만들어 내는 미지근한 온도의 분위기, 햇별이 바로 들지 않아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만드는 창문, 있는 그대로인 나와, 하느님의 자녀로 노력하려는 내가 공존하는 곳.

바로 성당 그 자체가 가장 그리웠던 것 아닐까요. 많은 냉담자들이 다시 성당에 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지 성당에서 느꼈던 감정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당에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든 아직 성당에 존재한다고 감히 확신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성당에서 ‘다시’ 만납시다.

(덧- 지금은 부모님도 냉담을 끝내시고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자신의 세례명을 표현한 복장으로 독서중



사별퇴강성당을 함께 찾은 청년들



손 모아 기도하면 편해지는 이유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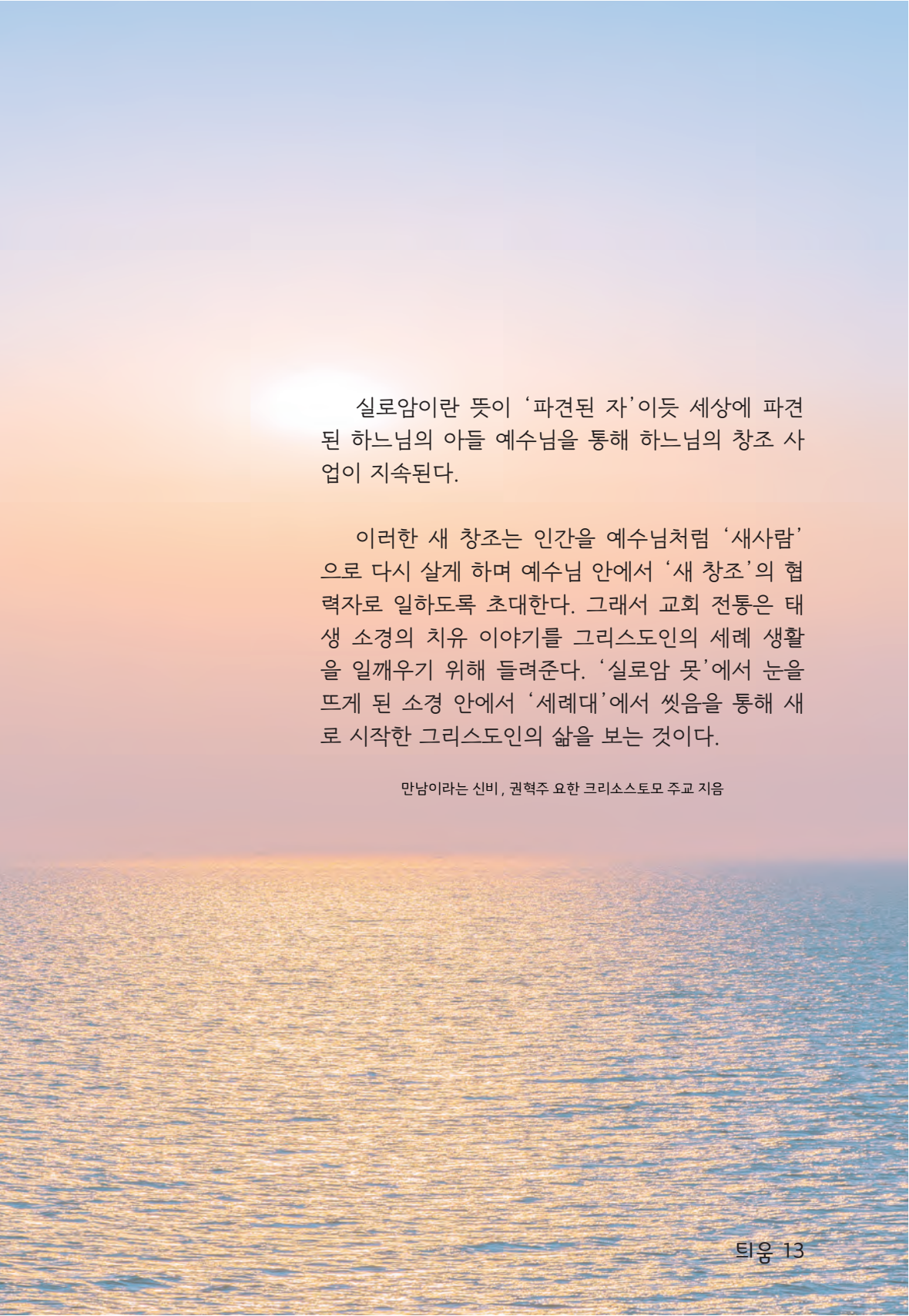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양손을 모으는 것은 손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이 자신이 지닌 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서 절대적 권능을 가진 분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로 태초부터 였다고 한다. 두 손을 모으면 산만해지기 쉬운 마음이 모아져서 집중이 된다. 그 모은 두 손 안에는 에너지(氣)의 흐름이 잘 통하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세파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어디냐 하면, 주먹을 가볍게 쥐면 손바닥 중앙 가운데 중지의 끝이 닿는 부분이 있다. 두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위치하는 노궁(勞宮)혈로, 12경맥 중에서 수궐음심포경의 화(火)혈이다. 여기서 심포(心包)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그 기능은 심장과 비슷하다. 우리가 “그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마음 심보를 ‘심포’라고 보면 되는데 마음을 잘 써야 심장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가급적 마음을 곱게 쓰도록 하자.

노궁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위장의 기능을 조절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안 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침 자리다. 특히 심신을 안정시켜 주고, 심장의 열을 제거하여 정신을 맑게 하며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흥통이나 히스테리, 발작성 간질과 증풍으로 인한 정신혼미에도 사용하고 위장의 습열(濕熱)로 인

한 입 냄새도 치료한다. 중년여성분들 중에 특히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유용한 자가 치료방법 중의 하나가 반대쪽 엄지손가락 끝으로 노궁혈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3~5분 정도만 해줘도 피로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전부터 손뼉을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즐거울 때 손뼉을 치기에 기분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손바닥이 마주쳐 혈류순환이 잘 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손뼉을 칠 때 노궁혈도 지속적으로 자극되기 때문이다. 노궁혈 반대편 손등을 외(外)노궁이라 한다. 여기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노역으로 목과 어깨 근육이 뭉쳐 빠근할 때 가만히 누르고서 목을 전후좌우로 움직여주면 근육이 풀린다. 그래서 노궁혈과 외노궁을 동시에 안팎으로 눌러주기도 하는데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시키고 싶을 때 노궁혈이 특효혈이라서 그렇다.

우울할 때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나게 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속은 후련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지치고 더 피로해진다. 반면에 조용히 가만히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편안하게 된다. 양 손바닥에 있는 노궁혈이 합쳐져서 에너지가 생기고 둘이 하나가 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긴다. 마치 인체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우리가 두 손 모아 우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마음 심보를 바로 잡아 바치는 기도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되는 이유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실로암이란 뜻이 ‘파견된 자’이듯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지속된다.

이러한 새 창조는 인간을 예수님처럼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협력자로 일하도록 초대한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태생 소경의 치유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세례 생활을 일깨우기 위해 들려준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 안에서 ‘세례대’에서 씻음을 통해 새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이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다인 본당 상광공소

Q : 우리 공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애기 들어보니까 200년 전쯤 평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양반들이 다 빼앗아 갔는데 이를 본 외국 선교사들이 막아주어서 성당에 다니면 농사지은 걸 빼앗아 가지를 았았답니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당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2 : 1988년도 무렵에 이 공소가 윗마을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공소 출신 신부님 방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옆에 방을 조그맣게 지어 공소예절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구호물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교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동네에 공소를 하나 새로 설립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우들이 줄어드니까 그건 폐쇄되고 상광공소로 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는데 교구 지원금과 성금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1989년에 공소 신축 공사를 마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우 3 : 제가 올 해 88세로 우리 공소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공소는 여러 본당을 거쳐왔습니다. 처음에 퇴강 성당, 두 번째 의성 성당, 세 번째 군위 성당, 네 번째는 예천 성당입니다. 예천까지 육십 리인데 걸어 다녔지요. 지금 안동 주교좌성당 축성식을 할 때 우리 공소에서 떡을 해가지고 가서 축하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이 너무 멀어 신부님이 오시면 보통 2박 3일 머물거나 1박 2일은 기본으로 계시다 가셨지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청 엄격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1년 12달 금요일은 고기도 안 먹었지요.

Q : 우리 공소의 장점이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공소에서 성직자 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공소에는 신부님 수녀님이 네 분이냐 배출되었습니다. 아마도 공소의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우 1 : 처음 시집와서 이 동네에 사는데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교우분들이 하나같이 다정다감하고 친절을 베풀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늘 마음이 성당으로 끌렸지요. 그래서 저도 영세 받고 우리 아저씨도 영세 받고 또 숙모님과 시어머니도 받게 되면서 온 가족이 다함께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2 : 저는 8년 전에 이 동네로 귀촌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세례받고 냉담한 지 30년 쯤 되었지요. 위치도 떨어져 있어서 동네 분들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성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귀촌 후 서먹했던 것들이 교우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한 주민으로 어울리게 되어 저로서는 제일 큰 보람이고 많은 것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67항-174항

- 167항** 지구 온난화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대기 중 온실가스 () 목표가 마련 되었습니다. 실천 계획을 담은 의제와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마련 하였고, 삼림에 관한 원칙들을 발표하였습니다.
- 168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와 그 개정안을 통한 그 협약의 실행으로 오존층 감소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선 듯 합니다.
- 169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대국들과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나라들의 ()과 ()와 ()이 요구됩니다. 2012년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이른바 ‘리우+20’으로 불리는 ‘국제 연합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는 많은 문제를 다루었지만 효과 없는 최종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 170항** 기후변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져도 자원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 171항** ‘탄소 배출권’ 거래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오염 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172항** 가난한 나라들은 자국민들의 빈곤 퇴치와 사회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를 직접 이용하려면 개발 도상국들이 기술 이전과 더불어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와 도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언제나 구체적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173항** 국제 관계에서 각국의 ()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결국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지역적 재해 방지를 위한 상호 합의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이나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고도로 오염된 폐기물을 내다 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을 ()하는 것과 같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막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국제적 규제의 틀이 필요합니다.
- 174항** 해양 폐기물과 ()와 관련된 문제들의 증가는 계속 특별한 도전 과제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6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몬	테	리	안	경	권	태	풍
트	용	사	주	용	차	부	차
리	평	직	정	기	한	등	향
올	투	교	해	태	수	공	적
의	기	부	양	성	주	동	한
정	등	에	보	여	책	권	제
서	너	막	호	이	임	오	출
지	원	래	빛	슬	전	리	배

4월 당첨자

김창희 나탈리아 (하망동 본당)

임송길 베네딕도 (계림동 본당)

최보현 보나 (하망동 본당)

유경희 세실리아 (휴천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2 -똥 살리기 3-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똥은 오랫동안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똥에 대한 혐오와 기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토착 문화권에서는 논밭의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착 문화권에서는 수천 년동안 자연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농업에 적극 활용해온 것이 똥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미국 농무부 토지관리국장을 지낸 위스콘신대학의 킹 박사나 동경대학에 와 있던 에드워드 모스 포르투갈의 선교사 프로이스등 서양인들은 동양의 똥 이용 방식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동양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한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똥을 논밭의 중요한 거름으로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연 순환형 농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1. 호기성(好氣性) 분해와 혐기성(嫌氣性) 분해

호기성 분해란 산소가 있는 곳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을 말하고, 혐기성 분해란 산소가 없는 곳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호기성 분해는 부패이고, 혐기성 분해는 발효라고 보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건 없건 부지런히 똥을 분해해서 분자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물론 박테리아는 월급도 받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같은 청소부 일을 자청해서 합니다. 그래서 똥을 왕겨나 톱밥 기타 다른 식물들과 섞을 때 호기성 박테리아가 일할 수 있게끔 공기가 통하는 충분한 공간만 켜켜이 만들어주면 아무런 냄새도 없이 양질의 거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혐기성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호기성 박테리아는 섭씨 15도 전후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과 20도~45도 온도에서 잘 자라는 중온성, 그리고 45도 이상에서 잘 자라는 고온성으로 나뉩니다. 물론 80도 이상에서 잘 자라는 초고온성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똥 속에는 이런 박테리아가 1g에 1조개나 있습니다. 겨울에도 퇴비 더미 속에서는 겨울잠도 없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정규직 청소부 박테리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도 유독 거름 자리에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은 바로 박테리아의 땀입니다. 물론 전후 분해과정에서도 조금 더디긴 하지만 고온 분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병원균과 각종 기생충 알 모두가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곰삭은 똥거름은 화학비료로 망가진 논밭을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논밭에 남은 잔류 농약 성분 또한 거름을 뿌리면 분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의 온상으로 여기던 똥이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2. 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물인 수세식 화장실

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메탄가스 냄새가 나고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서 18-19세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한 것은 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은 똥을 하수구나 길거리에 마구버린 결과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 창궐도 이처럼 마구 버리는 똥이 한 몫을 했던 겁니다. 길거리에 워낙 똥오줌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라서 여성들이 정장을 하고 외출하면서 옷에 똥이 묻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 오늘날의 하이힐입니다. 이층집에서 창 밖으로 던지는 요강의 똥과 오줌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쓴 것이 바로 창이 넓고 높은 모자입니다. 똥이 패션과 유행을 창조해 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 이르러 도시 하수구 체제가 대폭 정비되는 것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위시다운형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세식 화장식은 똥을 더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똥 처리 방식인 겁니다. 인간은 정말 똥에 대해 쥐똥도 모릅니다.

석유램프

(1960년대 높이 40cm* 지름 17cm)

이 두 개의 석유램프는 함창 성당과 남성동 성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독일 AIDA회사 1350 제품이다. 김재문 신부님은 당시 성당에 이 한 개의 램프만을 켜 두어도 성당이 밝았다고 하며 램프 위에 냄비를 올려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력도 좋았다고 한다. 성당의 안과 밖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남성동 본당 램프는 고장 난 상태이나 함창 본당 램프는 당시 사용하던 석유도 들어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김재문 신부님이 1981년부터 가지고 다니시다가 남성동에서 임기를 마치면서 보관하라고 당부했던 것을 전해 받았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안창선 다니엘
봉화 본당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화 본당의 안창선 다니엘입니다. 신부님을 도와 30년 이상을 복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신주를 모시며 무속신앙을 믿으시던 어머니께서 가톨릭 신심이 깊은 이웃 친구분의 삶을 보시고 아내와 아들 둘 해서 넷이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해 뒤에 세례를 받고 온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가정방문 오신 수녀님의 권유로 복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큰 은총으로 기억되는 것

매번 복사를 서기 위해 미사에 꼭 참석해야해서 더러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발걸음이 성당으로 향해요. 또 예전에 제가 담배를 매우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미사 참석을 위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는데 제게서 담배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사로 주님을 경배하는 제사에 참석하면서 이런 몸가짐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로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요. 하느님께서 복사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

처음 복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만 되면 발걸음이 저절로 성

당으로 향하고 몸이 아프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복사를 씁니다. 때로는 바쁘고 귀찮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복사라는 소임을 맡으니 오히려 미사에 빠지지 않아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햇수로 35년이 넘었네요.

귀농

예전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다리를 다쳐서 1년 반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연고가 없는 이곳 봉화로 귀농하였습니다. 처음 내려올 적에는 콩 농사나 짓고 과수원 하면서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과 농사는 수익이 나지 않았고 현실은 생각대로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앗간이 하나 나왔는데 다급한 마음에 매일 기도로 하느님께 응답을 구했지요. 그리고는 방앗간을 인수해서 사과 농사도 짓고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분들의 도움도 크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시골로 이사 올 때는 성체조배도 매일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지만 거리가 멀고 일이 힘들어서 바라던 삶이 허락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고 자꾸 잊어버려서 성경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주 일에는 반드시 미사에 참례하고 또 복사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항상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만화 신약 성경 1,2

글 그림 황중선, 320쪽, 20000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 속 예수님을 좀더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성경 속 세계로 들어가는

흥미진진한 만화 성경이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를
만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곁들여 읽기 쉽게 편집했다.

1권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유년 시절, 공생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2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수난과 죽음,

부활 이야기,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약상과

사도 시대의 교회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바로로떨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큰일이 났습니다!

박철현 가브리엘 신부
청송 본당 주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청송 본당에 부임한 박철현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청송 본당 발령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잠시 되돌아보니, 짧은 기간 중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싶습니다.

2월과 3월은 적은 수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며, 이 본당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제로서 할 수 있는 봉사란 그저 본당 전례와 친교, 짧은 시간의 재교육 정도라, 소소하게 작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송 교도소의 교정 사목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중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을 살던 중, 상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결국 지난 3월 25일 화요일 오후 무서운 화마(火魔)가 청송읍내를 갑자기 덮쳤습니다.

외곽을 태우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이 순식간에 읍내로 번지고 약수탕과 파천면 일대, 진보면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도로에 차와 사람이 쏟아져 나와 움직일 수도 없고, 정전과 통신장애까지 일어나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기 그지없었지요. 십여 분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 손에는 급하게 감실에서 모셔온 성체와 본당 통장 뿐이었습니다.

3월 28일 청송성당 산불피해(파천면)현장방문과
4월 25일 청송군청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참 막막했습니다. 미련도 남
더라고요. 당황할 시간에 노
트북이랑 옷가지 몇 벌이라
도 챙길 걸 하며 불길을 피
해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
습니다.



저녁 8시 무렵, 본당 뒷마당으로 와 보라는 본당 신자분의 전화를 받고 뒷
마당으로 가보니, 이미 신자분 몇 분이 뒷마당으로 떨어진 불씨를 소화기로
진화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성당과 사제관, 수녀원은 화재를 피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성당 뒤 학교 일부와 성당 담장 뒤쪽 가정집은 계속 불타고 있었
습니다.

10시 무렵, 통신이 회복되면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이 타버려
갈 곳이 없다는 신자분들, 안부를 묻는 수 많은 분과 많은 통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은 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내고는 계시지만,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청송 뿐 아니라 피해 입은 모든 분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봄의 신학생이, 여름의 여러분께

김윤성 바실리오
학부2, 주교좌 목성동 본당

저는 이 편지를 4월에 쓰고 있습니다. 꽃가루 한창 날리는 봄입니다. 이 편지가 형제 자매님들께 닿는 것은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니, 저는 두 달 뒤의 여러분께 글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즈음에 저는 방학을 앞두고 있겠지요.

4월의 저는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시험을 수백 번은 쳤을 텐데도 중간고사는 여전히 긴장되었고, 그 후에 맞이한 주님 부활 대축일은 참으로 활기찼습니다. 파스카 성삼일부터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본당 파견 기간이 짧았기에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4월의 저는 신학교 못자리에서 부단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신학생이 되어 여러분을 만나기를 늘 고대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자신이 밍게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하느님의 사랑 덕분임을 느낍니다. “사제 성소자는 신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조금은 더 와닿는 요즘입니다.

4월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기에,

고단하고 지친 마음을 안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비록 여러분과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도로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무척이나 기쁠 것 같습니다.

6월의 저는 어떤 모습일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교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 여정을 기쁘고 떳떳하게 걸어가고 있을지? 늘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어설픈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떠올리면, 참 설레고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합니다.

6월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힘을 얻고 여러분과의 동행에 위로받으며 성소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교구의 모든 신학생이 이와 비슷한 다짐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다시 만날 여름방학까지 부단히 달리고 있는 안동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5. 5. 11.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프로그램 진행 중인
김윤성 바실리오 신학생



2025년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성지순례)

5월 11일(주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2025년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예비신학생과 부모님, 신학생들이 성지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론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고,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위치한 곳이라 순례가 더욱 뜻 깊었습니다.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예비신학생들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알 림

1. 2025년 예비신학생 6월 모임

일 자 : 6월 15일(주일)

장 소 : 진안리성지

* 예신 6월 모임은 특별히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김경란	10,000	장희익	20,000	신미란	10,000
가 은	508,000	김경란	10,000	정경자	20,000	양수모	10,000
계 림 동	483,000	김경림	5,000	정재식	50,000	이길선	10,000
공 검	142,000	김경수	50,000	정태진	20,000	이영섭	20,000
모 전 동	1,447,000	김계형	50,000	조기섭	10,000	전정희	5,000
목 성 동	1,640,000	김근희	5,000	조원준	10,000	정옥남	10,000
문 경	248,000	김길자	50,000	최경희	20,000	최은정	10,000
안 계	339,000	김은경	10,000	최영옥	10,000	최인숙	10,000
울 진	740,000	김현정	20,000	탁인자	30,000	현희성	10,000
의 성	1,966,000	김혜경	10,000	황상호	30,000	황재혜	5,000
함 창	158,000	김혜자	100,000				
		박승철	10,000	월 모 입 편		새크라멘토 한인성당	
교구 내 기타		박종대	10,000	강면식	20,000	14,643,000	
김정현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고인숙	90,000	성 분 도 치 과	
백동수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이경숙	360,000	100,000	
서동호 신부	20,000	송은옥	10,000	이문수	120,000	안 동 신 협	
안영배 신부	10,000	신동섭	10,000	이순연	40,000	10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심재임	20,000	이 길 선 편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최금주	50,000	은총의 거울 Pr	
정철환 신부	10,000	신정렬	200,000			25,000	
박경순	20,000	안명숙	20,000	이 길 선 편		정의의 거울 Pr	
박보라	10,000	안승태	500,000	강명희	5,000	20,000	
박정렬	10,000	안안택	10,000	권순옥	10,000	향 주 삼 덕 회	
서영림	10,000	위은숙	10,000	김중향	5,000	20,000	
이가엘	10,000	유병현	10,000	김지은	10,000	정 의 의 거울 Pr	
		이귀호	10,000	나양수	30,000	20,000	
타교구 개인		이임영	30,000	박영신	10,000	향 주 삼 덕 회	
강윤순	5,000	이정숙	20,000	백형숙	10,000	20,000	
권양일	10,000	이호숙	10,000	변우경	5,000	정 의 의 거울 Pr	
김건화	10,000	장준영	10,000	송 경	10,000	2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아멘.
 곳곳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없어도
 예수님, 자꾸 슬퍼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만히 떠돌아다니고 싶어요.
 아이를 좋아하시는데는 감사부리 예수님 영혼을
 “예수님”하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외롭고 슬픈 마음을
 예수님, 그대도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난 성운을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것
 엄마, 아빠 없이 자라다 성운한 사람들을 알고 싶어요.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위로해주세요.
 마음도 없고 아이도 없고 무서워서 떠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엄마, 아빠를 빼고도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왜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나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엄마, 아빠를 찾다 보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리이로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기도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